

# 한국 사회변동에 따른 혼례관행<sup>1)</sup>의 변화

## On the Changes of Marriage Customs Due to Korean Social Fluctuations

광주대학교 문리과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張夏慶

Dept. of Home management Kwangju University  
Assistant Prof. : Ha Kyung, Chang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조사결과 및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will attempt to show how the marriage customs in Korea have changed due to fluctuations in Korea society and values related to this fluctu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present.

The procedures for marriage consists of preparation, union, and absorption. Before 1960, these mainly conformed to the old marriage customs of traditional society. Nowadays, the processes of preparation in marriage have been eliminated in large part, the processes of union have been changed to western style, and the processes of absorption have been altered to a degree. Matching the horoscopes of a prospective bride and groom and the "marriage box" still remain from the procedures of old marriages. The meaning of marriage as familism has changed to a form that emphasizes individualism, opportunism, and materialism.

1) '관행'이라는 용어는 '제도'와는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 1. 서론

혼인은 그 성격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즉, 개인의 결합이기도 하며 양가의 결합이라는 성격도 갖는다. 개인의 결합이라는 성격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혼인은 새로운 가족을 독립 발생시키며 서구 사회를 비롯하여 현대사회에서는 그러한 혼인의 성격이 지배적이다. 반면에 혼인이 양가의 결합이라는 권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가족의 의사가 혼인을 이루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양가의 어른인 주혼자가 혼인을 주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혼인에서는 한 사람이 출생한 가정을 떠나 다른 가족의 구성원으로, 그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동 가계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 한국의 전통사회는 가족중심주의의 유교문화의 가부장제적인 사회로 혼인은 양가의 결합이라는 성격으로 이루어졌다 할 수 있는 반면 현대사회는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강조되고 있어 혼인 또한 개인의 결합이라는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혼인의 성격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혼인관행에 있어서도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관습, 도덕과 같은 윤리적인면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적인면의 변화와도 연관된다고 사료된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혼례는 전통사회의 가부장제적이고 가족공동체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근년에 이르러 자본주의적 사회분위기와 남녀 양성평등을 위한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가족법과 혼인법으로 인해 점차 개인주의적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반 세기동안 한국사회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었으며 이는 문화나 국민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근대화이후 일본을 비롯한 여러나라의 문화의 유입과 함께 1960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 이후 한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및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이와 더불어 사회의 전부분에서 커다란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여 산업, 경제구조의 변화는 물론이고 가족구조에 있어서도 핵가족화가 가속되었으며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와 더불어 사람들의

생활양상 및 인간관계, 그리고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다. 이러한 사회전반적인 구조속에서 가족형성의 출발점이 되는 혼인에 관련된 법이 몇차례 개정되었으며 따라서 실제의 혼례관행도 많이 변화되었다.

이와같이 사회변동이 혼례관행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전제하고 각 시기마다의 사회적 배경과 혼례양상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변동의 시기구분은 일본의 식민지적 상황하인 시기를 제 1기, 1945년 이후 1960년까지의 사상적, 정치적 혼란기를 제 2기, 1961년 부터 1980년 까지의 경제발전시기를 제 3기, 1981년 이후 현재까지를 대중소비품의 확산시기로 규정하고 제 4기로 구분하였다.

혼례의 절차는 준비과정과 결합과정, 흡수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구식혼례의 절차에 의하면, 준비과정에는 의혼, 납채, 납폐의 절차가, 결합과정에는 친영의 절차가, 그리고 흡수과정에는 신랑과 신부가 배우자의 가족에 대해서 치루는 현구고례와 같은 절차가 이에 속한다. 이러한 단계는 한 개인이 자기가 속해 있던 가족에서의 지위를 버리고, 다른 가족의 일원으로 흡수 또는 참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즉 준비과정은 한 개인이 가족으로부터의 분리되는 과정을, 결합 과정은 자기 가족으로부터의 격리되어 새로운 가족원으로 결합되는 과정을, 흡수과정은 새로운 가족으로의 통합을 각각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적 상황시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회변동에 따라 이루어진 혼례관행을 분석하여 미래사회의 보다 바람직한 혼례관행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례관행은 사회구조의 변동에 따라 시기별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조사해본다.

둘째, 전통사회의 구식혼례 절차에서부터 현재의 신식혼례까지 지속되고 있는 부분과 변화된 부분, 그리고 새로이 도입된 혼례양태는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셋째, 혼례관행의 변화속에 나타나는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혼례의 절차

혼례란 남녀간의 결합을 공인하는 혼인제도에 따라 부부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혼인제도는 대체로 入丈制와 親迎制 그리고 半親迎制로 구분할 수 있다. 입장제는 고려말까지의 제도였고 친영제는 조선중기까지의 제도이며 반친영제는 조선중기부터 현재까지의 舊婚姻制度이다. 입장제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들어서 오랜 기간을 머물르는 제도로서 신부집(妻家)에서 혼인식을 올린 다음 그대로 눌러 앉는 것으로 '장가든다' '장가간다'는 말의 어원은 장인 장모집으로 들어간다는에서 나온 것이다. 고려말까지 시행되어오던 입장제는 조선대조때의 개국 일등공신이었던 배불승유(排佛崇儒)의 大學者 鄭道傳을 중심으로 종전 혼인제도에 대한 대개혁이 단행됨으로써 친영제로 변화되었다. 친영제는 오랜 동안의 관습으로 일반대중에게 쉽사리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나 왕가와 귀족사회에서는 급속도로 혼인제도의 변천이 이루어졌고 점차 서민층에게도 확산된 제도이다. 친영제란 大禮日(결혼식날)에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집으로 돌아와서 결혼식을 신랑집에서 거행하고 신부는 그대로 媿家에서 살게 되므로 고려조까지의 입장제와는 정반대의 혼인제도이다. 친영제는 의혼, 납채, 납폐, 친영의 四禮法과 六禮<sup>2)</sup>法이 있었으나 이 六禮와 四禮는 서로 혼용되어 실행되었다. 입장제가 신부측 중심의 제도라면 친영제는 신랑측 중심의 제도이다. 반친영제는 고려시대의 입장제와 조선중기까지의 친영제의 장점만을 취택해서 오늘에 이르른 것으로 大禮의 형태와 지역마다의 차이가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반친영제의 혼례는 대례일에 신랑일행이 신부집으로 가서 대례를 치른 다음 하룻밤을 묵고 신부를 대동

하여 于歸하는 방식이나 이틀을 묵고 3일만에 돌아오는 三日對飯제도 있다. 신부측 중심의 입장제와 신랑측 중심의 친영제를 보완한 반친영제는 우리나라의 전통혼례제도로써 오늘날 舊式婚禮法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주례」 「사례편람」 등에 나타난 혼인의례와 관련된 문헌과 연구논문, 신식혼례 도입직전의 구식혼례에 대한 共時的인 자료, 그리고 요즘의 신식혼례의 절차를 참조하여 혼례관행이 조사연구되었다. 혼례절차는 준비과정과 결합과정, 흡수과정으로 나누어 준비과정에는 의혼, 납채, 납폐의 절차가, 결합과정에는 친영의 절차가, 그리고 흡수과정은 현구고례가 연구되었다. 각각의 절차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준비과정의 절차와 의미

##### ① 의혼(議婚):

의혼이란 배우자 선택과정으로 신랑집과 신부집이 서로 혼사(婚事)를 의논하는 절차이다. 배우자 선택은 중매혼, 연애혼, 그리고 절충혼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나 주례(周禮)에 의하면 구식혼례는 혼인은 당사자간의 합의 즉 남녀의 애정을 기반으로 한 연애혼이 아니라 중매를 거쳐 양가의 주혼자가 주도하여 혼인이 성립되어 한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박혜인, 1988, 재인용). 구식혼례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천지(天地), 음양(陰陽)의 원리에 따른 남녀유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같은 구식혼례의 배우자 선택은 먼저 남자집에서 중매를 시켜 양가를 왕래하게 하면서 여자집의 허락을 받아낸다. 때로 간선이라는 절차와 궁합이라는 관습이 중요하게 인식되기로 하였다.

##### ② 납채(納菜):

혼약이 이루어져 구두로만 약속한 혼인에 대해서면의 형식으로 확인하여, 교환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양가가 혼인하기로 결정한 후 약혼의 징표로

2) 六禮: (1) 납채; 신랑의 사주단자를 신부집에 보냄 (2) 문명; 신랑측에서 신부의 모친가계를 알아보는 일 (3) 납길; 신랑측에서 혼례일을 신부측에 알림 (4) 납정; 신랑측에서 예물을 신부측에 보냄 (5) 청기; 신부측에서 납길(택일단자)에 대한 회답을 신랑측에 보내는 일 (6) 친영;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집으로 와서 대례식을 올림.

삼는 것이 '사주'를 보내는 것이다(박혜인, 1988,53). 사주단자는 사성(四星), 주단(柱單), 사주(四柱)라고도 부르며 대전지의 중간에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쓴 것을 말한다. 신부집에서는 사주단자를 받으면 이에 따라 신부의 생년월일시를 참작하여 '살'을 피하여 혼인날짜를 택하여 신랑측에 통지한다. 즉 택일은 신부쪽에서의 혼인에 대한 허락의 절차이다. 택일은 신부쪽에서 절대적으로 권한이 있었다. 신부의 생리적 현상에 대한 절대적 금기가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장길수, 1993,43). 이 때 택일한 날짜를 적어 보내는 종이를 연길(涓吉)이라고 부른다. 지방에 따라서는 허혼서와 함께 보내기도 하며 이것을 강서(剛書)라고도 한다.

### ③ 납폐(納幣):

혼례를 치르기 며칠전이나 전날 혹은 혼인하는 날 식을리기 전에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청혼 채단과 혼수(婚需)와 혼서(婚書) 및 물목(物目)을 넣은 함을 보내는데 이것을 납폐라고 일컫는다. 혼인이란 성스럽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고吉한 것을 취하므로 함도 하루의 시작이며 가장 淨한 시간인 '혼인전날' 자정에 보냈다(이길표, 1983,106). 지방에 따라서는 함에 많은 물건을 넣어 보내기도 한다(이차숙, 1991,109). 사례편람에서는 납폐는 적어도 두가지 이상이어야 하며 많아도 열가지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혼서는 신부에게는 무척 소중한 것으로서 일부종사의 의미로 일생 동안 간직하였다가 죽을 때 관 속에 넣어 가지고 간다. 혼서와 함께 보내는 채단은 신부측에 보내는 치마감을 일컫는 것으로 청색과 홍색 두감이며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다른 옷감을 더 넣어 보내기도 하며 상징적인 물건을 함께 넣기도 한다. 이외 신부의 예복이나 신부의 족두리, 그리고 신부에게 줄 패물, 옷감등을 함에 함께 넣기도 하였다.

## (2) 결합과정의 절차와 의미

### ① 친영(親迎):

친영은 전통혼례를 행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행사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신부집에 가서 大禮를 올리고 신방을 치룬 후 신

부를 신랑집에 데려오기까지의 과정이다. 大禮는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의 순서로 행해지며 전안례는 신랑이 기러아비와 함께 신부집에 도착하여 신부의 어머니에게 기러기를 드리는 예이다. 기러기는 한번 연(緣)을 맺으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짝의 연분을 지킨다 하여 신랑이 백년해로서약의 징표로서 신부의 어머니에게 기러기를 드린다. 전안례가 끝난 후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여 교배(交拜)례를 치룬다. 교배례란 초례청에서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상대방을 상견하여 서로 상대방에게 절을 하는 절차이다. 이 교배례로써 두 사람은 상대방에게 백년해로를 서약하는 것이다. 합근례는 술잔과 표주박에 각각 술을 부어 바꾸어 마시는 의례로써 근배례라고도 한다. 처음 술잔으로 마시는 술은 부부로서의 인연을 맺는 것을 의미하며, 표주박으로 마시는 술은 부부의 화합을 의미한다. 결합과정은 신랑과 신부의 첫날밤의 육체적 결합으로 비로소 실제화되며 서로 '아내'와 '남편'이라는 지위와 역할을 받게 된다.

### ② 혼인잔치 :

혼례식날을 잔치날이라 하여 일가친척은 물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성대한 잔치가 벌어진다. 혼인은 한 가정의 일이라기 보다 사회를 계승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은 '혼인잔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을 단위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인을 가례(家禮)로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 '혼인잔치'에는 친척, 마을사람,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도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다(장철수, 1991,62). 이 때 혼례집에 모인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 기타 혼례집에 온 마을 사람들에게는 국수, 떡등을 담은 쟁반을 하나씩 나눠주고 어른들에게는 술을 대접한다. 이른바 '잔치'를 벌이는 것이다(박혜인, 1988,85). 구식혼례에서는 혼례식을 신부집에서 치루기 때문에 혼인잔치의 음식물은 신부집에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본래 여가에서의 잔치가 혼인의례의 중심을 이루었던 오랜 역사를 지녔으나 일제시대 이후 다과를 내는 일본식 피로연으로 인해 '잔치'라는 용어는 '피로연'이라는 일본 용어로 바뀌고 형태도 오늘날의 음식점 피로연으로 탈바꿈되었다(박혜인,

1991, 51).

### (3) 흡수과정의 절차와 의미

#### ① 현구고례:

흡수과정은 혼례의 마지막 단계로서, 의례가 가지는 의미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로 통합되는 단계이다. 구식혼례의 경우 이 흡수과정은 신부가 신랑집과의 가족원화를 위한 단계로서 그러한 성격은 현구고례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신부는 시가에 와서 오늘날 폐백이라고 불리워지는 현구고례(見舅古禮)를 올리는데 신부집에서 장만해 온 술, 닭, 밤, 대추등을 차려놓고 시부모로부터 시작하여 시가의 근친에게 차례로 큰 절을 하고 술을 올린다(박해인, 1988,98). 이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의식은 신부가 시부모로부터 대추를 받는 절차다. 대추는 자식, 그중에서도 아들로 상징되고 있으며 신부가 대추를 받는 것은 가계계승을 위한 역할을 부여받는 것이다. 본래 현구고례는 신부를 媿宅 大小家에 처음으로 소개함으로써 그 덕 가문의 한사람이 됨을 인지하는 의식이므로 신부만의 行禮였던 것이 언제부터인지 신부와 신랑이 함께 절을 하는 풍습으로 바꾸어 행해지고 있다(이길표, 1988,107).

## 2. 한국사회의 변동과 그 시기적 특징

### (1) 제 1기: 근대화이후부터 1944년 까지: 일제의 식민지적 상황

식민지적 상황에서 봉건제적 질서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시기이다. 9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상공업은 소수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일본과는 경공업-농업의 수직적 분업체제로 농민수탈이 극도에 달해있었던 시기적 상황으로 서양의 문화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일제의 침략으로 일본의 문화가 유입되고 식민지적 상황에서 전민중이 수탈되고 기아적 선상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상류층이나 지식인을 제외하면 전통적 봉건적 생활양식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

기독교의 전파로 인해 1890년대에 생긴 '예배당결혼'을 그 시초로 1900년대에는 불교계에서도 '불식

화혼법(佛式花婚法)'이 등장했다. 그 후 1913년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합병한 후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제정할 때 "신고(申告)함으로써 혼인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법률혼주의 또는 신고주의로 전환시켰다. 1920년에 행해진 왕세자 이은(李垸)과 방자여사와의 서구식의 혼례양식은 일반민의 혼례복의 변화와 혼례과정의 변화를 큰 영향을 미쳤으며, 1930년대에는 계명구락부(啓明俱樂部)를 중심으로 사회결혼이 보급되기도 하고 천도교에서도 독특한 혼례식을 거행하였다. 이 때에 서울에서는 전문적인 예식장이 생겨, 교회나 절과 함께 활발히 활용되기도 했다(장철수, 1991,17). 이와같이 혼례절차는 한말(韓末)이후 이른바 개화기를 거치면서 서구문화와 일제 식민지시대의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와 종교, 사상의 격동과 혼란에 의해 변모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934년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의례준칙'에서 혼례장소로서 신부집 이외에 神社와 寺院 또는 교회당을 제시하였고, 혼례복도 한복 이외에 和服, 洋服을 제시한 세무사항들은(김혜선, 박해인, 1993,145-146) 혼례변천사에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 (2) 제 2기: 1945년 해방년도 부터 1960년까지 : 사상적, 정치적 혼란기

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과 함께 여러가지 사상적, 정치적 혼란이 극심한 시기이다. 해방의 기쁨과 혼란을 겪은 우리민족은 다시 1948년까지 미군정 3년을 거친 후, 1948년 제1공화국이 탄생되었다. 미군정 3년의 직접적 통치기간은 한국의 생활상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쳐 국민들 사이에도 서양풍조가 우월한 것으로 인식되고 모방되기 시작한다. 의상도 많이 바뀌며 교육도 신식 미국식 교육이 보급되어 영어도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을 겪게 되고 전쟁은 민족적인 큰 사건일 뿐만아니라 한국인의 문화와 의식을 크게 바뀌어 놓았다. 따라서 전통적 가족관계의 해체를 경험하게 되고 사상적인 큰 혼란과 변동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의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전쟁 후의 복구를 미국의 원조물자에 의존하여 실제 이 시기의

경제를 원조경제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안한 제1공화국은 4.19로 끝나게 되고 제2공화국이 탄생했다. 이 시기는 국민의 75%가 농업에 종사하여 농업이 중심이 되나 공업이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원조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미국은 고마운 나라, 자유의 나라로 인식되고 따라서 미국식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확산되어 자유연애의 풍조도 자연스럽게 파급되고 따라서 혼례관행은 서구식 양상으로 서서히 시작되는 시기이다.

### (3) 제 3기: 1961년부터 1980년까지 : 경제발전시기

본격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가족규모의 축소 및 단순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5.16군사 구태타로 시작한 제3공화국은 정치적으로는 억압적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를 유지하지만 경제부분이 크게 변화하여 사회는 급격한 변동을 맞이한다. 매년 8%의 경제성장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 소위 경제적 후진국가에서 중진국 개발도상국으로 도약하였다. 특히 공업중심의 수출지향적 산업화가 시작되어 농업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상.공업인구가 급격히 증가한다. 따라서 농민의 도시로의 이농화현상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전 가구의 가구이농의 증가현상과 함께 농촌 미혼여성의 단신이농이 증가하고 이들은 수출산업·도시공장 노동자로 진출하였다. 매스컴이 발달한 시기로 라디오<sup>3)</sup>등의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생활속에 많은 부분을 변화시킨다. 인구성장률이 경제성장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국가 주도하에 비교적 강압적인 가족계획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권희완등, 1993,71) 평균자녀수가 감소한 시기이다. 가족규모의 축소화와 도시로의 이농화현상은 부모자식간의 관계를 변화하게 하였으며 혈연관계보다는 비혈연관계가 중시되어 가족.혈연등 1차집단보다는 직장.단체.조직등의 2차집단의 관계가 확대 중시된다. 1961년부터 정부에서 주도한 '의례준칙'과

산업화, 근대화과정에서 1969년에 정부가 공포한 검소와 간소화를 장려하는 '가정의례준칙'은 고유성과 지방특성마저도 점차 소멸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1977년 개정된 혼인법은 만 20세이상의 성년남녀에게 부모의 강요나 간섭없이 혼인은 당사자들이 자유선택에 따른 합의로써 결정하도록 하였다.

### (4) 제 4기: 1980년 이후 현재까지: 대중소비품의 확산시기

대중 소비품의 급격한 발달로 전자제품과 자가용이 급속히 확산되므로써 국민의 소비의 패턴이 전 시기와는 전혀 다르게 바뀌게 된 시기이다. 정부는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과거의 경공업 중심의 개발에서 중화학공업, 첨단산업으로 비중을 옮기게 되어 과거에 섬유, 의류, 신발산업에서 전자, 기계, 자동차산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전세계적인 과학기술혁명 ME혁명이 이루어져 컴퓨터 도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80년대 말 이후에는 자가용이 보편화되어 1994년에는 자가용 한대당 인구는 9명이 되었으며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활용 방법 다양화에 따라 1994년의 가구당 외식비는 소비지출의 44.8%로 비중이 커졌다. 국내 여행등 옥외 여가활동이 급증하는등 문화활동 양상이 영화나 TV보기등의 소극적 모습에서 기분전환, 건강, 성취욕 충족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전자제품등의 살림살이구비비용이 커지고 생활양식도 소비문화와 관련된 형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혼인법은 1989년에 개정된 것으로서, 혼인한 부부가 협의에 의해 동거장소를 정하고 부부공동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남녀 양성평등적인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혼례관행은 자의반 타의반식으로 역사적, 시대적 변화의 흐름속에서 전통혼례절차는 '구식혼례'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된 혼례의 형태가 '신식혼례'라 불리지며 오

3) 1970년 라디오의 가구당 보급율은 69%에 달했으나 이 후에는 너무 보편화되어 아예 통계대상에서 제외되었다.(통계로 본 광복 이후 한국인의 문화생활변천, 통계청, 1995)

늘날 우리사회의 혼례관행으로 뿌리내리며 혼례절차가 담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 형태가 바뀌고 있다.

### III. 연구방법

#### 1. 도구작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이론적배경을 중심으로 인구사회학적배경과 혼례절차에 관한 질문으로 작성한 것이다. 혼례절차는 준비과정과 결합과정, 흡수과정으로 나누어 문헌을 참고로 작성된 후 사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구성되었다. 준비과정으로 의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배우자선택과정과 궁합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납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주단지여부와 혼인날짜택일방법, 그리고 납폐에 해당하는 함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결합과정으로 혼례식 또는 친영에 해당하는 혼례식형태, 주례자, 혼례식장소와 혼인잔치여부와 혼인잔치장소를 조사하였다. 흡수과정으로 현구고례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배경으로는 결혼년도와 응답자및 배우자의 교육수준 그리고 결혼전까지의 주 성장지, 그리고 현재의 월소득을 질문하였다.

#### 2. 조사방법

##### (1) 질문지구성을 위한 1차조사

「주례」 「사례편람」 「가정의례준칙」 등 기타 문헌에 나타난 혼인의례와 현재 혼례관행에 나타나는 사항등을 개방형질문으로 질문을 구성하여 1995년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면접법으로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은 기혼여성으로 20세이상부터 80세미만을 10년을 단위로 하여 세대단위마다 15명씩 총 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2) 혼례에 관한 질문구성을 위한 2차 조사

1차조사에서 수집된 혼인의례에 관한 사항들을 개방형질문과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20세이상 기

혼여성을 10세대위로 각 세대마다 15명씩 총 90명을 대상으로 1995년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자가응답형식과 면접을 겸하여 조사한 후 문항을 검토하였다.

##### (3) 내용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한 사전조사

선다형 폐쇄식형 질문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각 년대별로 30명씩 총 160명을 대상으로 1995년 5월 2일부터 10일까지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 (4) 본조사

20대이상 80세미만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150명씩 총 900명에게 1995년 5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 3. 자료처리

총 900부를 배부하여 회수한 결과 부실기재한 것을 제외하고 540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기억이 불확실한 문항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에, 총 68문항 중 5문항이상이 기재되지 않은 응답지는 신뢰도가 낮다라고 판단하여 제외시키고 63문항 이상이 기재된 응답지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항목마다 사례수가 다르게 처리되었다.

### IV. 조사결과 및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 1-4>와 같다.

#### 2. 준비단계의 결과와 분석<sup>4)</sup>

<표 5>에 의하면 배우자 선택과정은 시기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까지는 전통사회의 혼인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양가의 主婚者끼리 정혼하는 의혼의 형식을 띤 배우자선택

4) 이하 분석제시된 표의 내용 중 ( )밖의 숫자는 사례수이고, ( )안의 숫자는 %임은 명시함

〈표 1〉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

교육수준	성 별	
	여 N (%)	남 N (%)
한학공부	19( 3.6)	28( 5.3)
보통학교	37( 7.1)	24( 4.6)
국민학교	67(12.8)	36( 6.9)
중학교	79(15.1)	55(10.5)
구제중학교	6( 1.1)	5( 1.0)
구제전문대	2( .4)	3( .6)
고등학교	147(28.1)	134(25.6)
전문대학	27( 5.2)	16( 3.1)
대학교	90(17.2)	180(34.4)
대학원	2( .4)	21( 4.0)
무학	39( 7.4)	11( 2.1)
사범학교	2( .4)	7( 1.3)
검정고시	7( 1.3)	4( .8)
계	524(100.0)	524(100.0)

〈표 2〉 혼인 연령

시기구분	남자의 혼인 연령		여자의 혼인 연령	
	M	N	M	N
1912-1944	21.91	80	18.00	80
1945-1960	24.72	105	20.45	105
1961-1980	28.18	174	24.33	174
1981-현재	28.82	171	25.91	171
계	26.76	530	23.11	530

이 지배적이었으나 1960년 이후 본인의 의사가 부모보다 더 강조되어 현재에는 주로 당사자간의 의사로 이루어지는 연애혼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길표(1983)는 전통사회에서 배우자의 선택범위가 계급적, 지역적 내혼제이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선택 기준 또한 가문의 융화와 영속성을 뒷받침 하는데 있었던 것이,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의 영향을 입은

〈표 3〉 조사대상자의 결혼전까지의 주 성장지

성장지	N	%
특별시	20	3.8
직할시	144	27.2
중소도시	86	16.3
군·읍·면	272	51.4
기 타	7	1.3
계	522	100.0

현대 가족생활에서는 가문끼리의 혼인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두사람 사이의 관심과 취미가 화통할 수 있는 비슷한 교육, 문화적 배경을 지닌 배우자를 각자가 선택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혼인법은 1977년에 성년이 된 남녀에게 부모의 강요나 간섭 없이 당사자들의 자유선택에 따른 합의로써 혼인을 결정토록 개정되었다. 이와같은 혼인법 개정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연애혼이 증가하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995년도의 조사(장하경외, 1995,92)에 의하면 대학생의 배우자선택의 조건으로 가문(남학생:0.6%, 여학생:2.8%)보다는 성격(남학생:79.4%, 여학생:55%)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 젊은 세대들은 배우자의 가족적 배경보다는 개인적 배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연애혼이 더욱 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합이란 혼인할 신랑·신부의 사주를 맞추어 보아 길흉을 점치는 방술이다(김성배, 1980). 〈표 6〉에 의하면 부부가 되는 신랑,신부의 화합의 길흉을 미리 알아보고자하는 궁합의 비중은 현대사회에서도 아직까지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식날짜를 잡기위해 필요하였던 사주단자는 1960년대까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970년대를 과도기로 1980년대부터 감소하고 있다(〈표 7〉). 결혼날짜를 결정하는 것은 '택일'이라 하여 신부집에서 신랑·신부의 생년월일시에 따라 생기복덕(生氣福德)을 가리고 '살'을 피하여 (장철수, 1991,35) 혼례식날을 길일로 택하기 위하여 필요하였던 사주단자전달이 감소하는 경향으로 여자가 평생 간직한다는 사주단자의 의미와 그 상징성 또한



〈표 4〉 현재의 월평균소득

월평균소득 혼인년도	50만원미만	50-100만원미만	100-150만원미만	150-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	계
1912년 -1944년	50(61.7)	20(24.7)	9(11.1)	1(1.2)	1(1.2)	81(15.3)
1945년 -1960년	38(35.8)	35(33.0)	27(25.5)	5(4.7)	1(0.9)	106(20.1)
1961년 -1980년	22(12.8)	39(22.7)	95(55.2)	11(6.4)	5(2.9)	172(32.6)
1981년 -1995년 2월	8( 4.7)	30(17.8)	119(70.4)	12(7.1)	0(0.0)	169(32.0)
계	118(22.3)	124(23.5)	250(47.3)	29(5.5)	7(1.3)	528(100.0)

〈표 5〉 배우자선택과정

변인 시기구분	중매인을 통하여 부모의 의사로	중매인을 통하여 본인의 의사로	연애	친척, 친구 소개	전적으로 부모님이	계
제 1기:1912-1944	62(82.7)	3( 3.7)	0( 0.0)	2( 2.5)	9(11.1)	81(15.2)
제 2기:1945-1960	75(70.8)	17(16.0)	2( 1.9)	4( 3.8)	8( 7.5)	106(19.9)
제 3기:1961-1980	45(25.9)	58(33.3)	45(25.9)	22(12.6)	4( 2.3)	174(32.7)
제 4기:1981-현재	9( 5.3)	43(25.1)	83(48.5)	34(19.9)	2( 1.2)	171(32.1)
계	196(36.8)	121(22.7)	130(24.4)	62(11.7)	23( 4.3)	532(100.0)

〈표 6〉 배우자와의 궁합여부

변인 시기구분	알아봄	알아보지 않음	계
제 1기:1912-1944	69(85.2)	12(14.8)	81( 15.1)
제 2기:1945-1960	83(78.3)	23(21.7)	106( 19.8)
제 3기:1961-1980	99(56.9)	75(43.1)	174( 32.7)
제 4기:1981-현재	92(53.5)	80(46.5)	172( 32.3)
계	343(64.6)	190(35.3)	533(100.0)

〈표 7〉 사주단지받은 여부

변인 시기구분	받음	받지 않음	계
제 1기:1912-1944	61(76.2)	19(23.8)	80( 15.2)
제 2기:1945-1960	79(75.2)	26(24.8)	105( 19.9)
제 3기:1961-1980	92(52.9)	82(47.1)	174( 33.0)
제 4기:1981-현재	74(44.0)	94(56.0)	168( 31.9)
계	326(61.8)	201(38.2)	527(100.0)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8)은 결혼식 날을 택하는 방법을 알아본 것이다. 사주를 받은 답례로 신부집에서 신랑집에 '택일'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에 따라 택일을 '날

받이' '연길'이라고도 한다(박혜인, 1988,57). 식민지적 상황이었던 시기와 그 후 정치적, 사상적 혼란기였던 1960년까지 결혼식날은 대부분 길일을 택하였다. 그러나 경제발전시기인 1960년대 이후, 직장취

〈표 8〉 혼인식날 택일방법

변인 시기구분	공휴일,국경일 택해서	길일을 택해서	직장 쉬는날로	기타	계
제 1기: 1912-1944	4( 4.9)	76(93.3)	0(0.0)	1(1.2)	81(15.3)
제 2기: 1945-1960	14(13.2)	90(84.9)	1(0.9)	1(0.9)	106(20.0)
제 3기: 1961-1980	59(34.1)	96(55.5)	12(6.9)	6(3.5)	173(32.6)
제 4기: 1981-현재	96(56.1)	63(36.8)	5(2.9)	7(4.1)	171(32.2)
계	173(32.6)	325(61.2)	18(3.4)	15(2.8)	531(100.0)

는날을 포함하여 공휴일이나 국경일등 직장에 나가지 않는 날을 택하여 결혼하는 추세가 증가하여 최근은 주로 공휴일이나 국경일을 결혼날짜로 정하고는 있으나 길일을 택하였다고 응답도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전과는 달리 오늘날엔 신랑과 신부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주례와 축하객들의 사정도 고려하여 휴일을 택하여 결혼식 날짜를 결정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고 본다.

〈표 9〉 합받은 여부

변인 시기구분	합받음	합받지 않음	계
제 1기:1912-1944	73(90.1)	8( 9.9)	81( 15.1)
제 2기:1945-1960	85(80.2)	21(19.8)	106( 19.8)
제 3기:1961-1980	121(70.0)	53(30.0)	174( 33.0)
제 4기:1981-현재	118(68.6)	49(31.4)	167( 32.3)
계	397(64.6)	131(35.3)	528(100.0)

함은 납폐의 절차로 결혼식 날이 결정된 후에 신랑집에서 납폐서(혼서)와 함께 납폐(혼수)를 담은 신부집에 전달하는 것이다. 〈표 9〉를 보면 함은 결혼의 구체적인 증표의 의미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결합과정의 결과와 분석

결합과정은 신랑과 신부가 결합의 예를 올리는 절차로 구식혼례에서는 친영의 절차가 이에 해당되나 친영은 혼례절차 중 실제관행과 가장 많이 상치되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는 친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혼례식을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치루었는가와 혼례주례를 누가 하였는가 그리고 혼인 잔치장소는 어디인가를 조사하였다.

혼례식은 혼례의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다. 〈표 10〉과 〈표 11〉을 보면 우리나라는 1960년까지는 집에서 구식혼례식의 형태로 혼례식을 치루었으나 경제발전시기인 1961년부터 1980년 사이에 예식장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가정의례준칙'은 1968년에 공포된 것으로 그 당시의 혼례의 폐단을 개정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사치스러운 약혼식장, 청첩장의 남발, 혼인잔치, 그리고 호화스러운 혼례식등의 항목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표 10〉, 〈표 11〉과 같이 경제발전과 함께 급속히 서구식으로 변화되는 혼례관행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었다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정부에서 '가족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시기로 국가는 경제발전에 대응하는 금전적인 소모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모든 면에서 추진하던 시기이나 국민생활은 소비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혼례식의 변화도 이러한 사회적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1960년까지는 집에서 구식혼례식으로 혼례를 치루어 주례 또한 동네어른이 혼례식을 주도하였다〈표

〈표 10〉 혼례식장

변인 시기구분	예식장	종교장소	공공장소	집	기타	계
제 1기:1912-1944	0( 0.0)	4( 5.3)	2(2.6)	64(84.2)	6(7.9)	76( 14.9)
제 2기:1945-1960	9( 8.8)	7( 6.9)	6(5.9)	77(75.5)	3(2.9)	102( 20.0)
제 3기:1961-1980	84(50.6)	16( 9.6)	9(5.4)	55(33.1)	2(1.2)	166( 32.5)
제 4기:1981-현재	129(77.2)	27(16.2)	9(5.4)	1( 0.6)	1(0.6)	167( 32.7)
계	222(43.4)	54(10.6)	26(5.1)	197(38.6)	12(2.3)	511(100.0)

〈표 11〉 혼례식 형태

변인 시기구분	구식혼례식	신식결혼식	종교식	계
제 1기:1912-1944	78(96.3)	1( 1.2)	2( 2.5)	81( 15.2)
제 2기:1945-1960	90(84.9)	11(10.4)	5( 4.7)	106( 19.9)
제 3기:1961-1980	58(33.3)	103(59.2)	13( 7.5)	174( 32.7)
제 4기:1981-현재	4( 2.3)	147(86.0)	20(11.7)	171( 32.1)
계	230(43.2)	262(49.2)	40( 7.5)	523(100.0)

〈표 12〉 주례자

변인 시기구분	스승	종교계인 사	직장 상사	정계 인사	경제계 인사	주례전 문인	동네 어른	기타
제 1기:1912-1944	1( 1.3)	1( 1.3)	1( 1.3)	2( 2.5)	0(0.0)	1(1.3)	66(88.0)	3(4.0)
제 2기:1945-1960	8( 7.9)	9( 8.9)	0( 0.0)	1( 1.0)	2(2.0)	2(2.0)	77(76.2)	2(2.0)
제 3기:1961-1980	39(23.2)	28(16.7)	16( 9.5)	15( 8.9)	3(1.8)	6(3.6)	56(33.3)	5(3.0)
제 4기:1981-현재	58(34.1)	38(22.4)	20(11.8)	18(10.6)	5(2.9)	11(6.5)	12(7.1)	8(4.7)
계	106(20.6)	76(14.8)	37( 7.2)	36( 7.0)	10(1.9)	20(3.9)	211(41.1)	18(3.5)

12). 1961년부터 1980년까지를 보면 신식결혼식이 일반화되던 시기로 주례자는 스승, 종교계인사, 직장 상사등 새로운 계층의 인물이 나타나고 있다. 1981년 이후 스승이 주례자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 국민의 교육수준이 향상된 현상으로써 해석되며 도시화현상은 직장이나 단체, 조직등의 인간관

계를 발생시켜 이를 중심으로 혼례의식과 절차도 이루어졌다고 분석된다.

〈표 13〉을 보면, 1960년까지는 혼인잔치를 신부집에서 치루었다가 1961년 이후 식당이 혼인잔치의 장소로 이용되기 시작하여 1981년 이후는 혼례식과 혼인잔치는 결혼식장과 식당에서 치루어지는 것이 일

〈표 13〉 혼인잔치장소

변인 시기구분	식당	결혼식 장소	친정	시집	교회	절	기타	계
제 1기:1912-1944	3( 3.9)	4(5.3)	55(72.4)	11(14.5)	0(0.0)	0(0.0)	3(3.9)	76(15.3)
제 2기:1945-1960	5( 5.1)	8(8.2)	63(64.3)	18(18.4)	0(0.0)	0(0.0)	4(4.1)	98(19.8)
제 3기:1961-1980	42(26.9)	8(5.1)	67(42.9)	33(21.2)	2(1.3)	0(0.0)	4(2.6)	156(31.5)
제 4기:1981-현재	124(74.7)	9(5.4)	11( 6.6)	12( 7.2)	3(1.8)	1(0.6)	6(3.6)	166(33.5)
계	174(35.1)	29(5.8)	196(39.5)	74(14.9)	5(1.0)	1(0.2)	17(3.4)	496(100.0)

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80년 이후의 물질만능주의와 상업주의, 편의주의의 자본주의의 경제체제와 가치관이 사회에 팽배하게 흡수된 현상으로 분석된다.

#### 4. 흡수과정의 결과와 분석

구식혼례에서 흡수과정은 주로 신부가 신랑의 가족에 치루는 절차이다. 구식혼례에서는 신부집에서 신방을 치르고 신부가 처음으로 孀家로 와서 시부모를 위시하여 시댁어른들과 가까운 친척에게 인사드리는 것을 현구고례라고 하였는데 오늘날 폐백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표 14〉에 의하면 현구고례는 1960년까지 시집에서 치루어지다가 제 3기의 경제발전시기에 예식장에서 치루어지기 시작하여 1981년 이후 폐백장소는 예식장이 일반적인 장소가 되었다. 오늘날의 폐백은 예식장에서 혼례식을 치룬 이후 바로 예식장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흡수과정에서의 폐백은 그 형식과 의미가 많이 변화된 형태로서 절차만이 현재 신식결혼식에 남아있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제에 의한 식민지적 상황시기 한국의 사회변동에 따라 혼례관행의 변화추이를 조사하였다. 한국의 사회변동시기에는 1945년 이전까지의 일제의 식민지적 상황을 제 1기, 광복되던 해 부터

1960년까지의 정치적, 사상적 혼란기를 제2기, 1961년부터 1980년까지 경제발전시기를 제3기, 1980년 이후 현재까지를 제4기로 하여 대중소비품의 확산시기로 규정하였다. 혼례관행은 구식혼례절차를 중심으로 준비과정, 결합과정, 흡수과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과정에 관계되는 사항을 조사하였다. 준비과정에는 의혼에 해당하는 배우자선택과정과 결혼당사자간의 궁합을 알아보았는가와 사주단자와 함을 받았는가, 그리고 택일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결합과정에 관한 사항으로 혼례식장과 혼례식형태, 주례자, 혼인잔치 장소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흡수과정으로 현구고례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표 15〉는 시기구분에 따른 사회적 배경에 따라 혼례관행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각각의 시기와 혼례절차를 구분하여 각 시기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혼례관행을 정리한 것이다.

전반적인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혼례의 준비과정에서 먼저 배우자선택과정을 보면, 중매인을 통하여 부모의 의사로 배우자를 선택하였던 구식혼례의 의혼형식은 경제발전시기인 제 3기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는 형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당사자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연애혼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근대화과정에서 사회적, 지리적 이동이 증대되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기간이 연장되고 이성끼리 만나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도시적 생활양식이 증대되면서 배우자 선택양식도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연애혼이

〈표 14〉 현구고례 장소

시기구분 \ 변인	예식장	친정	시집	기타	계
제 1기:1912-1944	2( 2.6)	11(14.5)	62(81.6)	1( 1.3)	76( 15.1)
제 2기:1945-1960	8( 8.1)	10(10.1)	75(75.8)	6( 6.1)	99( 19.7)
제 3기:1961-1980	54(34.2)	17(10.8)	76(48.1)	11( 7.0)	158( 31.4)
제 4기:1981-현재	138(81.2)	0( 0.0)	15( 8.8)	17(10.0)	170( 33.8)
계	202(40.2)	38( 7.6)	228(45.3)	35( 7.0)	503(100.0)

(\* 530명 중 503명이 현구고례를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현구고례 장소를 분석하였다.)

〈표 15〉 시기구분에 따른 일반적인 혼례절차

혼례과정	시기구분과 사회적배경 내용	1912-1944	1945-1960	1961-1980	1981-현재
		식민지적상황	정치적,사상적 혼란기	경제발전시기	대중소비품 확산기
준비과정	배우자선택과정	중매인을 통하여 부모의 의사로 (82.7%)	중매인을 통하여 부모의 의사로 (70.8%)	중매인을 통하여 부모의 의사로 (33.3%)	연애로 (48.5%)
	궁합여부	알아봄 (85.2%)	알아봄 (78.3)	알아봄 (56.9%)	알아봄 (53.5%)
	사주단자	받음 (76.2%)	받음 (75.2%)	받음 (52.9%)	받지않음 (56.0%)
	결혼식날 택일 방법	길일 (93.3%)	길일 (84.9%)	길일 (55.5%)	공휴일,국경일 (56.1%)
	함	받음 (90.1%)	받음 (80.2%)	받음 (70.0%)	받음 (68.6%)
결합과정	혼례식장	집 (84.2%)	집 (75.5%)	예식장 (50.6%)	예식장 (77.2%)
	혼례식 형태	구식혼례식 (96.3%)	구식혼례식 (84.9%)	신식결혼식 (59.2%)	신식결혼식 (86.0%)
	주례자	동네어른 (88.0%)	동네어른 (76.2%)	동네어른 (33.3%)	스승 (34.1%)
	혼인잔치	친정 (72.4%)	친정 (64.3%)	친정 (42.9%)	식당 (74.7%)
흡수과정	현구고례 장소	시택 (81.6%)	시택 (75.8%)	시택 (48.1%)	예식장 (81.2%)
	살림시작 장소	시집 (82.3%)	시집 (85.8%)	시집 (52.9%)	분가 (79.3%)

증가하고 있는 결과라 하겠다. 반면에 不婚여부를 가늠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간의 궁합을 알아보는 것은 아직도 우리문화에 남아있는 혼례관행으로 연애혼의 현상과는 대조를 보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결혼식 날짜를 결정하기 위해 남자집에서 보내오는 사주단자는 1980년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택일방법도 신랑·신부의 생년월일시에 따라 '길일'을 정하여 혼례식을 치루는 것보다는 공휴

일이나 국경일 등 휴일을 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혼인의 구체적인 증표로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전달하는 함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혼례관행의 하나로 결혼을 확인하는 절차가 되고 있다. 이로써 배우자선택과정과 사주단지전달, 택일방법은 산업사회의 생활양식의 영향으로 인해 전통사회의 구식혼례의 방법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나, 배우자와의 화합의 정도를 예측해 보는 궁합알아보기와 혼인의 증표로 물건을 담아보내는 함전달은 아직도 현대 사회에 남아있는 구식혼례의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다.

결합과정은 전통사회의 구식혼례의 모습이 가장 많이 변화된 부분이다. 주례자가 홀기에 따라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친영은 1960년까지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혼례절차였다. 그러나 이 친영은 1960년대 사회자의 순서에 따라 식이 진행되는 신식결혼식이 전파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이후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따라서 전통혼례복은 자취를 감추고 드레스와 양복이 발전되고 있어 요즘 실해되고 있는 예식장의 신식결혼식은 전통사회의 구식혼례와는 전혀 다른 변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혼례식은 1960년까지 대체적으로 집에서 동네어른을 주례로 모셔 구식혼례식으로 치루어진 후 집에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이행되는 경제발전시기인 1960년 이후 예식장혼례가 등장하여 스승이나 종교계인사, 또는 직장상사를 주례로 모시고 신식결혼식을 치른 후 식당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으로 결합과정의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 경제발전이 국민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과 생활향상에도 영향을 미쳐 혼례관행도 소비중심과 서구식의 결혼의 양상으로 변화를 야기시켰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흡수과정인 신부가 신랑의 가족에게 치루는 형식의 현구고례는 아직도 간소화된 형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그 장소는 변화되었다. 1960년까지 현구고례는 시집에서 치뤄지다가 예식장혼례와 함께 1960년 이후 현구고례도 예식장에서 치루어지기 시작하여 현재는 일반적으로 예식장에서 예식이 끝난 후 현구고례도 예식장에서 치루어지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흡수과정은 그 의미는 남아있으나 절차와 모습은 변화되어 수정된 모습으로 남아있다 하겠다.

이와같이 1960년대 초부터 일련의 경제개발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온 산업화는 경제구조의 성격뿐 아니라 혼례관행을 비롯한 사회생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다. 근대화과정으로 인한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유입, 민주주의와 개인주의 사상도입, 집중적인 도시화와 1980년 이후의 급속한 속도로 확산된 자본주의 형식의 물질주의로 인해 혼례양상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혼례의 준비과정은 많은 절차가 소멸되었으며, 결합과정은 서구식으로 변화하였고, 흡수과정은 일부 수정된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래의 전통사회가 구현하였던 가족주의, 집합주의의 혼례의 가치관은 개인주의, 편의주의, 물질주의형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전통과 근대를 단절로 보는 Smelser(1963)의 견해에 의하면, 근대화로 인한 구조적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행위규범을 요구하며, 따라서 이것은 기존의 사회적 행위와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즉 전통적인 행위규범을 근대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따라서 전통은 마땅히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편, Bendix(1967)는 전통과 근대는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과거에도 근대적인 요소가 존재하였으며, 근대라고 불리우는 오늘날에도 전통적인 요소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미래학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더 빠른 속도의 문화적 변화와 생활유형의 다양성을 예측하고 있다. 세계와, 미래를 전략으로 하고 있는 현재, 지나치게 개인주의의 가치관을 가진 서구식의 혼례양상, 물질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식의 혼례관행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같은 현재의 혼례양상을 지양하는 한편, 전통적 형식만이 아름다운 미풍양식을 간직한다하여 구식혼례 모습을 고집하는 사고방식보다는 혼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 우리나라 전통 고유미풍양식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혼례관행이 제기되어야 한다. 변화를 사회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적용으로 받아들이며, 사회적으로 실천운

동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고유의 전통혼례 양식을 이어나가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1) 가정의례해설(1973). 보건사회부.
- 2) 김관봉(1990). 관혼상제, 태서출판사.
- 3) 김동욱.최길성(1970). 한국 민속학, 새문사.
- 4) 김성배(1983), 한국의 민속, 집문당
- 5) 김종학(1987). 한국의 혼속연구, 대성문화사.
- 6) 김종택(1982). "전통혼속에서의 남정례에 대하여". 한국여성문제연구원, 17 ~ 29.
- 7) 권희환등(1993). 현대사회학의 이해, 이대출판부, 71
- 8) 金會式(1984). "家庭儀禮準則의 生活化實態에 關한 調査研究". 공주교육대학(제 20호), 7 ~ 37.
- 9) 朴惠仁.(1981), "전통적 혼인의례에 나타나는 한국 가족의 성격". 여성문제연구 제10집 효성여자대학부설 한국여성문제연구소, 307 ~320.
- 10) ——— (1988). 한국의 전통혼례 연구 -서류부가 혼속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11) ——— (1991). "한국 전통혼례의 연속과 단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또하나의 문화, 1991.
- 12) 사진으로 보는 가정의례(1989), 조선일보사.
- 13) 박현채 외.,(1980),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들배개.
- 14) 서울사회과학연구소,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1980년대 한국 자본주의-", 현실과 과학, 10호, 새길, 1991.
- 15) 이길표(1983). "가정의례를 통해본 한국인의意識構造 研究". 성신여대 연구논문집, 96 ~ 167.
- 16) ——— (1982). "家禮를 通해본 韓國人の 意識構造 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7) 이영미(1983). "우리나라 현행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가정학과 살림갈 제9호, 99 ~ 104..
- 18) 이차숙(1991). 한국가정생활사, 교문사.
- 19) 이순홍(1992). 한국전통 婚嫁考, 학연문화사.
- 20) 이효재외(1991). 한국전통혼례의 연속과 단절,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21) 장하경, 류소영외(1995), "성의식과 결혼관", 학기중 논문 1, 광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 22) 장철수 (1991).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23) 조양제(1969). 관혼상제, 일신서적공사.
- 24) 한국의 사회지표(1993). 통계청.
- 25) 한기영, 한국사회성격논의, 대동, 1988.
- 26) 황경애, 이길표(1994), "혼례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2권 2호, 163-174.
- 27) 통계로 본 광복 이후 한국인의 문화생활변천(1995), 통계청.
- 28) 최재양 (1977). "제주도의 혼인의례와 그 사회적 의의". 숙명여대 아세아여성연구 제16집, 197 ~ 217, 1977.
- 29) Bendix, R.,(1967). "Tradition and Modernity Reconsidered",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ix. No.3.
- 30) Smelser, N.,(1963), Mechanisms of Change and Adjustment to change, Dalton, G.ed. Economics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